

금융규제 완화·금융소외자 지원 '가속도'

주택대출 금리 2주째 금등세

국민은행 이번주부터 0.06%P ↑·신한銀도 0.02%P 올려

금융위, 내달 대통령에 업무 보고

연기금·사모펀드 은행 소유 허용

사금융 이용자 5월까지 실태조사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정책 등 금융규제의 완화, 국책은행의 민영화, 금융소외자 지원 등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금융정책의 방향과 실행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연기금·PEF에 은행소유 우선 허용 =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의 첫 단계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가운데 연기금과 사모펀드(PEF),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은행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소유를 허용하더라도 현재 4%로 제한된 은행지분 보유현도를 다 풀기보다는 10%, 15%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사전 자격심사와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본력과 시장 영향력이 큰 4대 그룹의 경우 직접적인 은행 인수 대신 PEF 등을 통한 간접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은 연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책銀 민영화·M&A시장 달군다 =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와 보조를 맞춰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

이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경우 연내에 산은캐피탈과 산은자산운용, 대우증권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만들고 내년부터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금융위는 산은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정부 지분의 대략적인 매각 일정,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코리아인베스트먼트'(KIF)의 설립 및 운용방안 등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을 다음 말까지 내용을 예정이다. 이 때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의 매각 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이 산업은행과 우리금융 등의 인수·합병(M&A)에 참여할 의사를 이미 밝힌데다 시중 대형은행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안이 확정되면 국책은행의 민영화가 가속도를 내며 은행 M&A 시장을 뜨겁게 달군 것으로 보인다.

◇내달 금융소외자 실태조사 = 금융위

는 다음달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5월까지 사금융 이용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분석을 마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원금 탕감없이 채무자의 경제 여건에 따라 연체 이자를 일부 깎아주면서 채무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자, 소득이 없는 청년층, 영세 자영업자 등이 우선적인 지원대상에 오른다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에 있는 연체 기록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연체는 없지만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소액 대출자의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소액 서민대출은행을 세워 창업자금 등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은행권 두달새 0.72%P 금등락

은행권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2주째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8%대로 치솟았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이번달 7%대 중반까지 급락했다가 이번에는 다시 금등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처럼 대출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객들을 3개월마다 대출금리를 새로 적용받는 시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번주 연 5.93~7.53%로 지난해에 비해 0.06%포인트 오르면서 2주 동안 0.10%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1월 셋째주 6.55~8.15%로 고점을 찍은 뒤 이번달 둘째주 5.83~7.43%로 0.72%포인트 하락했다.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일 기준 6.28~7.68%로 전영업일에 비해 0.02%포인트가 오르게 된다. 상승세가 시작된 13일에 비해서는 0.

11%포인트가 높아지는 것이다. 신한은행 역시 1월 14일 최고치인 6.89~8.29%를 기록했다가 지난 13일 6.17~7.57%로 대출금리가 크게 하락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불과 두 달 사이에 0.72%포인트 범위에서 주택대출 금리가 금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대출 금리가 금등락하는 것은 기준금리로 삼는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에 대출금리가 그대로 연동되기 때문이다.

상당기간 상승 또는 하락기조에 의해 결정되는 정책금리와 달리 CD금리는 매일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다 보니 수급요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일시적인 자금시장 및 채권시장 움직임에 따라 주택대출 고객의 이자부담도 덩달아 출렁이게 된다는 점이다.

가령 1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1월 초 금리가 새로 적용됐다면 이번달에 금리가 바뀌는 고객에 비해 3개월간 약 18만원(1억원 x 0.72%포인트 x 3/12개월)의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국민소득 2만달러 불구

한국, 세계 순위 40위권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넘어섰지만, 세계 순위는 40위권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세계은행(WB)이 전세계 209개국을 대상으로 2006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1인당 GNI가 2만1천690달러였던 그리스의 세계 순위는 40위였다.

지난해 기준 각국 1인당 GNI는 아직 집계되는 중이지만, 2만45달러로 집계된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GNI를 2006년 세계순위표에 집어넣는다면, 우리나라의 세계 순위는 그리스에 이어 41위를 기록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세계 139위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규모(2006년 8천880억달러)에 걸맞은 1인당 GNI를 달성하려면 현 수준보다 1인당 GNI가 2배 이상 상승해야 한다. 1인당 GNI가 세계 12위인 국가인 스웨덴으로 그 규모가 4만3천580달러에 달한다.



젊음, 이렇게 입어봐요

제일모직 캐주얼 브랜드인 FUBU(후부)가 지난 21일 개최한 광주시 동구 충장로점 오픈 기념행사에서 모델들이 '살아있는 패션 카탈로그'라는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생활품 50개 '고르기 어렵네'

소비자 소득분포 반영 등 곤란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생활품 50개 집중관리' 발언에 따라 '주요 생활품 지수'를 개발하면서 품목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청와대는 서민들이 많이 쓰는 품목을 골라 피부에 와닿는 지수를 만들 것을 주문했지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마땅한 통계 자료가 없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50개 품목에는 소득계층 40% 이하의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품목인 쌀과 돼지고기, 가.밀가루·배추·무·달걀·우유·라면 등 식료품과 학원비·통신비·회비·유·의류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품목들이 선정된 근거자료는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소비자물가 가중치와 품목 개편작업을 위한 조사결과다. 하지만 2006년 12월에 작성된 이 자료는 소비자들의 소득보다 지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조사항목에 소득도 포함됐지만 소비자물가 소득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품목 개편작업은 2006년에 실시된 것이어서 최근 서민들의 잠바구기가 가벼워진 원인이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인당 근소세 환급 52만원

2006년 연말정산 743만명 환급받아

3조8천억 더 걷힌 셈

지난 2006년 연말정산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743만명, 1인당 환급금액은 5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급금액은 근소세 원천징수세액의 26%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돌려받긴 하지만 근로자들은 손 소득세 산납으로 인해 이자분만 큼의 금전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기준 근로소득세 납세자 중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743만3천명으로, 이들이 돌려받은 세액은 3조8천411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원천징수를 통해 근소세를 납부한 사람이 879만9천명, 이

들이 납부한 세액이 14조6천977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천징수당량 근로자의 84.5%가 원천징수세액의 26.1%를 돌려받은 셈이다.

1인당으로는 평균 52만원씩을 환급받은 것으로, 2005년에는 701만1천명이 4조5천550억원을 환급받아 1인당 환급액은 65만원이었다.

이처럼 근소세 환급세액이 매년 수조원씩 발생하는 것은 현행 원천징수 제도 하에서 근로자들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선납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란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특정의 소득 지급자(기업체)가 지급받는 자(근로자)가 부담할 세액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납부하는 제도다.

유가·원자재값 폭등 수익성 악화

업종간 '주종관계' 갈등 더 심해져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값 폭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주종관계' 업종간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시멘트업체와 레미콘업체, 자동차회사와 부품업체, 철강업체와 건설사, 철강업체와 조선업체, 항공사와 여행사, 정유사와 주유소 등 전통적인 '갑을 관계'인 업체간에 불협화음으로 국내 경제가 위기상황에 몰리고 있다.

고철값 급등으로 자동차 제작사와 건설사들은 고철을 사용해 납품하는 부품 및 철강업체들로부터 가격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부품업체들 원재료비의 20%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이 재협상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품업체들은 10년간 부품제품의 원자재인 고철은 190%, 선철은 121% 올랐으나 정작 부품제품 가격은 20~30%만 인상됐다면 어려움은 호소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들이 주원료인 울해 들어서만 벌써 철근값을 세차례나 인상해 건설비 압박을 받고 있다.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여파로 건설업계는 레미콘, 조선업계는 후관을 원하는 만큼 공급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레미콘과 후관은 이들 업종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재료라는 점에서 공급업체의 가격 인상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난차 '뉴 포터' 1위

스타렉스·봉고 順

도난차 사고가 가장 많은 자동차는 뉴 포터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보험개발원이 2006 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에 발생한 자동차 도난보험금 지급사례 1천667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난사고가 가장 많은 차종은 뉴 포터(155건)였다.

2~10위는 차례로 스타렉스(108건)-봉고 프론티어(73건)-포터II(69건)-뉴그레이스(51건)-봉고III(41건)-와이드봉고(32건)-뉴 렉스턴(31건)-쏘렌토(27건)-산타페(26건) 순서였다. 7위까지 지위를 화물·승합차량이 차지해 자영업에 많이 쓰이는 이들 생계형 차량의 도난이 많은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분석했다.

전체 차량 등록대수 가운데 화물·승합차의 비중은 26.5%인 데 비해 도난차량 중 이들 차량의 비중은 48.8%로 절반에 가까웠다.

저소득 신혼부부

전세대출 쉬워진다

앞으로 저소득 신혼부부들이 좀 더 쉽게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23일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저소득 2인 가구 등의 신용등급 및 보증현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임차자금 보증활성화 방안'을 마련,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상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본인 소득수준과 채무불이행 유무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개인당 소득에 합산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신용등급 하락요인인 채무불이행 이력도 빚을 갚았다면 채무불이행 해제시점 이후 시간이 경과된 정도에 따라 가점을 줄여주기로 했다.

주택 미분양 사태·원자재난 지속땀

지방 건설사·2금융권 부실 가능성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지방 건설사와 제2 금융권부터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연구위원은 23일 '주택경기 침체와 주택금융 리스크 관리' 보고서에서 "주택 미분양 사태와 원자재난이 지속될 경우 여신축소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 기반과 신용도가 낮은 지방 건설사와 제2 금융권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저축은행권의 경우 업계 전반에 영향력이 높은 일부 대형 저축은행들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비중이 과도하게 높아 이들이 부실화할 경우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 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PF보다 신용대출이나 집단대출 등 소매금융으로 자산운용 및 수익선을 다변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은 협상이 진행 중인 금융권의 대출연장 자유희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로도복권 (제27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10 12 13 15 25 29	20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3,272,627,800	3
2 5개 숫자+보너스 일치	52,784,320	31
3 5개 숫자 일치	1,482,169	1,104
4 4개 숫자 일치	59,211	55,271
5 3개 숫자 일치	5,000	914,243

팝콘복권 (제100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5억	1조 650805
2	1억	2조 861308
		5조 242702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54616
5	50만	각조 5430
		각조 29
6	2천	각조 45
		각조 38
		각조 5
7	1천	각조 2
		각조 8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새롬W&P	생산직(제조업) 남/녀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24	062-945-9767
㈜한리메디칼	병원 마케팅 및 관리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4	062-262-3001
㈜한국건설산업시험연구원	경리 총무사무원 사원	대졸/경력무관	1000~1200	03/24	062-946-0186
화인스틸(주)	경영지원팀 대졸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5	062-955-3300
스타일엔진	소풍물류 발송고 및 경리 지원 구함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5	062-710-5220
㈜휴로넷	[고정급148만원]SK텔레콤(광주)멀티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03/26	011-299-7000
㈜시온디자인	[광주근무]플래시 애니메이터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6	062-971-4725
한진실업(주)	사무관리(지재, 품질담당)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27	062-953-4702
더블원건설(주)	골조공정-전문건설 현장기사 계약직구함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7	063-373-0428
서울공사(주)	[광주공과대학원] 정규직 사원(비피교과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8	062-369-0790
동화코퍼레이션(주)	해외영업관리 직원(광주지사)	대졸/경력무관	1800~2000	03/28	062-971-4725
㈜미음그리기	삼성 홀플러스 광고 영업직(sales manager)-광주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8	02-784-7755
명신대학교	체육학과 전임강사 교수	대원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61-742-2351
㈜다해전력	태양광발전주주책 현장시공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31	062-572-0622

〈광주직포리아 512-6210 제공〉